

과로 심화 방향으로 가는 2025년, 한국의 유통물류 산업

유청희 상임활동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퇴근 후 과로사한 20대 노동자, 뛰면서까지 쿠팡 배송을 하다가 과로사한 노동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량 때문에 사망해 산재로 인정받은 택배 노동자들. 유통물류 업계의 과로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노동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고 있다. 택배업계 중 1위를 달리는 CJ 대한통운은 2025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유통물류 업계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더욱 어려워진 2025년의 시작이다.

노동자 건강 갉아먹는 물류센터 야간노동

소비자들이 주문한 제품이 모이고 지역별로 분류되어 배송되기까지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확대되며 많은 노동자가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간이나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자들은 한 달에 20일 이상을 고정해 야간노동을 한다.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와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실시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에 따르면,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전체 응답자 270명 중 69.2%), 주간으로 변경할 의사는 41.4%만이 있다고 밝혔다. 임금 저하를 원하지 않아서(67.5%)가 주된 이유였다. 야간 노동자의 44.1%가 야간 노동을 시작한 뒤 수면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답했다. 노동강도를 파악한 결과 ‘빠르게 걷는 수준의 힘듦’(보그지수 평균 14.33)이라고 답했고, 현재의 61.78% 정도로 노동강도가 낮아지기를 희망했다.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서, 연속 야간노동에 대한 제한, 야간노동자가 건강 등을 이유로 주간으로의 이동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야간에 업무를 할 때는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노동강도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야간 물량을 없애거나 감소시킬 방향으로 전환하고, 주간 노동만으로 생활임금이 유지될 수 있게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일용직 채용이 아닌 정규직 채용 역시 중요한 과제다. 물류산업의 야간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류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형성, 물류산업 업계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1년 365일 배송하겠다는 택배 업체

2025년 생기는 변화 중 하나로 택배 업체인 CJ 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제, ‘매일 오네’가 있다. 지금까지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택배 배송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쉬는 날 없이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겠다는 것이다.

CJ 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의 협의 끝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택배 노동자들은 6일 동안 주 60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에 7일 배송을 하면서 인력을 늘리지 않고 주 5일 근무할 수 있을까? 현재 택배노조와 CJ대리점연합회가 합의한 기본 협약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2인, 3인, 4인 1조 등으로 근무 편성표를 짜서, 같은 조 다른 기사가 쉴 때 추가 근무를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말 근무에 필요한 인원 보충 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CJ대리점연합회가 전체 대리점을 포괄하지 못해, 주 5일제를 원하는 노동자가 추가 근무를 거부할 경우 대리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원청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1년 365일 주문받고 배송하는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 주 7일 배송을 결정한 CJ 대한통운에 노동자 건강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로로 시작하는 새해, 제동을 걸 때

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 대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데 경쟁하고 있는 유통물류 업계를 멈춰 세워야 한다.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는, 24시간 소비하는 사회에서 불건강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할 것이다. 